

# '고강도 거리두기' 안한다...4차 접종 대상자 확대

###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추가...18일부터 접종 시작 코로나 재유행 방역·의료대책 발표... '자발적 거리두기' 강조 강시장, 고위험군 관리·위중증 예방 등 강도높은 대책 지시

코로나19 유행세가 가파른 증가세(광주일보 2022년 7월 13일자 1면)를 보임에 따라 정부와 광주시가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 재도입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광주시는 13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6면>

그동안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던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50대 등 새로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지원금 상향과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 1000만원의 위로금 지원을 하고, 19일부터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 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이전 유행시 시행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치명률이 과거 대유행기에 비해 낮아졌고, 백신 치료제가 확보돼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과거 유행 때와는 여건이 달라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방대본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고려했다"며 "방역 피로감 누적으로 고강도 거리두기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와 광주시는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관련 브리핑에서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이 확산세로 다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방역조치는 전면적 거리두기 없이 시행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코로나19 관련 부서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위험군 관리와 위중증 진행 예방을 목표로 코로나19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50대 이상으로 4차 접종 대



코로나19 백신접종 연령이 50세로 확대됨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백신 수급 불안이 예고된 가운데, 13일 오후 광주 북구 보건소에서 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의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상자 확대,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치료제 적극 투여, 원스톱 진료 기관 확대 등 정부 대응 방안에 맞춰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시설, 정신요양 시설 등에서 선제 검사를 시행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출 계획이다. 327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가

운데 161곳을 원스톱 진료 기관으로 운영하고, 아직 안정적인 병상 가동률(38.2%)에도 확산에 대비해 병상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광주 814명, 전남 850명 등 총 1664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너구리 라면 다시마는 '완도산' 농심, 450t 구매...40년 인연

농심은 이달 중순까지 완도군 금일도에서 열리는 다시마 위판(경매)에 참여해 총 450t(톤)을 구매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심은 다시마가 들어가는 라면 제품 '너구리'를 출시한 1982년부터 매해 완도에서 다시마를 사 왔다.

올해는 다시마 작황이 좋지 못해 가격이 작년보다 약 40% 올랐지만 농심은 연 평균 구매량인 400t보다 10% 이상 더 사들일 방침이다.

농심 관계자는 "신제품 '카구리' 출시와 더불어 관련 마케팅에 힘입어 너구리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외식비 상승 등으로 라면 수요가 더 커질 것에 대비해 다시마 구매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자발적 화학적 거세하면 감형 태국 성범죄 법안 의회 통과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성 중독 약물치료)를 택하면 감형하는 법안이 태국 의회를 통과했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주사를 맞으면 성범죄자의 행기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월 하원에 이어 전날 상원에서 가결됐다. 법안은 정신과 등 최소 2명 이상의 의료전문가 승인과 범죄자의 동의가 있을 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성 등을 놓고 의문과 우려도 제기됐지만 상원은 찬성 145표, 기권 2표 등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없었다.

술사 법수원 법무장관은 "여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태국에서 2013~2020년 성범죄를 저지른 1만 6413명 중 4848명이 재범이었다고 교정 당국은 밝혔다.

화학적 거세는 3개월마다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1회당 약 10만บาท(360만원)이 소요된다.

약물요법이 성범죄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성범죄자들이 약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화학적 거세가 성적인 욕구를 줄인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반박이 충돌한다. /연합뉴스

## "국민 마음 보듬어 공동체 회복 헌신해달라"

### 한덕수 총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예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방문해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했다.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동행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일 불교와 개신교계 지도자를 만났으나 김 대주교는 당시 국의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만나지 못했다.

한 총리는 최근 유홍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대주교)이 한국 천주교 사상 4번째로 추기경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한국 천주교 240년 역사의 큰 기쁨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탄생 100주년인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지침을 주셨던 김 추기경님을 기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경제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은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고 있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김 대주교에게 "천주교계가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3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방문해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정운영 과정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지혜와 고견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전남도 '남도고택' 활용 체류형 관광 활성화

### 전담여행사 5곳 선정, 고택·종가 매력 높일 상품 운영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남도고택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도고택 여행 상품'을 전담할 여행사 5개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남도고택 여행상품'은 지난해 영암 구림마을, 영광 매간당 고택 등 종가, 고택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했던 사업이다.

올해는 여행사 공모를 통해 전담여행사를 지정해 추진한다. 남도고택과 여행사 간 1대1 매칭을 통해 고택여행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을 개발해 모집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전담여행사로 선정된 5개 여행사는 고택·종가의 가치와 매력을 높이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해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특히 고택의 역사와 문화가 연계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도고택 여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상품을 통해 고객 차별화 전략을 내세울 예정이다. 올해는 전남종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영암 구림마을, 영광 매간당고택, 보성 이진래 고택, 강진 백운동원림, 담양 학봉종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정장모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남해 고택체험 시범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상품으로서 남도고택 가치를 재발견했다"며 "우수한 전남종가와 고택을 활용한 증가문화 확산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이발사 구함

010-8610-0211

| 근무지 |  
**미국 LA**

| 월급여 |  
**7백만원**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방 박용택(440923-XXXXXX)  
• 최후주속 : 순천시 서면 임석길 25  
• 등락기준지 : 전남 순천시 인제동 291  
피상속인 방 박용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순천지원 2022년단318호로 신청하여 2022년 7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7월 14일  
• 상속인 : 박성진(690419-XXXXXX)  
광주 광산구 청단내촌로35번길 8, 305호 (월계동)  
• 신고기간 : 2022. 7. 14. ~ 2022. 9. 2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박성진의 주소

### 산행안내

7월16일(토)

▲광주호산회 7월16일(토) 통영 육지로 섬산행 (05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시) 롯데백화점 (06시)1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생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 공장 150평, 방동철고 200평 (금방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 최신기계설비반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 70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전국내 •

북구	• 동광 266-1920	• 문 266-1960
	• 북광 525-3761	• 신 222-9171
	• 광산 571-7658	• 오 268-7801
	• 동 433-1503	• 무 433-1503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225-6001	• 중 222-9054
	• 중 222-8171	
동구	• 광 382-5788	• 상 372-2352
	• 서광 369-1625	• 문 376-7153
	• 지 376-6511	• 동 603-0311
	• 화 369-1625	
남구	• 남 952-1687	• 월 959-1920
	• 청 973-2900	• 하 955-0451
	• 광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